

행정명령

재난 비상사태 선언 연장

2019년 11년 20일 발령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98호에 의거하여, 대규모 홍수와 광역 침식, 수해로 인해 주택 및 기타 거주 구조물, 사업체, 공공 인프라에 대규모 피해를 입은 카유가, 제퍼슨, 먼로, 나이아가라, 올리언스, 오스위고, 세인트 로렌스, 웨인 카운티가 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2021년 7월 6일 발령한 행정명령 211호에 따라, 총기 폭력으로 인하여 주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2021년 8월 19일 발령한 행정명령 212호에 따라, 많은 비를 동반한 잔존 저기압으로 인해 스투벤 카운티 전역에 정전, 나무 쓰러짐, 지역별 홍수, 도로 폐쇄, 이동 중단 등 공공 및 민간 재산 손해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2021년 8월 21일 발령한 행정명령 213호에 따라, 브롱스, 킹스, 나소, 뉴욕, 퀸즈, 리치몬드, 서퍽, 웨스트체스터, 퍼트넘, 로클랜드, 오렌지, 더치스, 설리번, 컬럼비아, 델라웨어, 그린, 브룸, 셔냉고, 옷세고, 렌셀러, 쇼하리, 올버니, 몽고메리, 스키넥터디, 사라토가 카운티 및 인근 카운티 지역에 정전, 나무 쓰러짐, 지역별 홍수, 도로 폐쇄, 이동 중단, 공공 및 민간 재산 손해가 피해 지역 전반에 걸쳐 발생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KATHY HOCHUL** 본인은 뉴욕주의 주지사로서 헌법 및 뉴욕주 법령을 기초로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행정명령 198호, 211호, 212호, 213호에 명시된 주 재난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행정명령 198호부터 198.19호, 211호, 211.1호, 212호, 213호까지에 포함된 조항, 조건 및 중지를 2021년 10월 23일까지 계속 연장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